

『창세기 22회: 창세기 21:22-34』

1. 우물을 둘러싼 갈등 해결(21:22-34)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왔습니다. 아비멜렉과 비골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위해 자신의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과 그가 기도할 때 자신의 집안에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소년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다는 표현(20절)과 비슷합니다. 이 표현은 성공을 보증합니다(참고, 요셉과 모세, 창세기 39:2, 21; 출 3:12).¹⁾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모두 위험한 곳(아브라함은 블레셋,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거주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위험을 이기고 전진할 수 있습니다.²⁾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보이는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 축복은 **구약에서는 외부적인 조건들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수, 건강, 물질의 축복 등입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풍성히 열리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의 열매(갈 5:22-23)**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수준이 낮을수록 외부적인 수준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고, 경건의 수준이 깊어질수록 내적인 수준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외부/내부는 상호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양립가능합니다. 즉,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외적인 축복과 내적인 축복 모두를 경험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보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태도는 없습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께 충성하셨습니까? 정해진 분량만큼 말씀을 읽고, 시간을 정해 기도하고, 예배를 지키고, 주위 사람을 돌보았습니까? 기본기를 잘 익히시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지금 자신을 염려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손과 그의 땅을 염려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가족이 지속적으로 성공하리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³⁾ 그래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전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잘못을 묻지 않고 은혜를

1) Kenneth Mathews, *The New American Commentary: Genesis 11:27-50:26*(Nashville: B&H Publishing Group, 2005), 권대영 역, 『창세기 2』(서울: 부흥과개혁사, 2019), 354.

2) Victor P. Hamilton, *The Book of Genesis: Chapters 18-50*(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5), 임요한 역, 『NICOT 창세기II』(서울: 부흥과개혁사, 2018), 122.

3) Gordon J. Wenham, *Genesis 16-50, Word Biblical Commentary Volume 1*(Texas: Word Books, 1987), 윤상문, 황수철 역, 『창세기 16-50』(서울: 솔로몬, 2006), 207.

베풀어서 사라를 돌려보냈습니다(개역개정 '후대하라'는 히브리어로 은혜를 뜻하는 헤세드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도 그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본래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비해 우월한 정치적·군사적 지위를 주장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시도합니다.⁴⁾ “내가 은혜를 베풀었으니, 너도 은혜를 베풀라.”라는 태도입니다.

아비멜렉이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여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일까요? 그것도 일부만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는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존귀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 눈에 존귀해 보이는 은혜를 주십니다. 영향력과 무게감이 다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따라서 사람을 달리 대하는 것 같습니다. 학생일 때는 외모·공부·운동 등으로 사람을 달리 대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지위와 능력, 학벌, 소득과 무관하게 존귀함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별로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면,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사람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나를 훨씬 크고 존귀하게 대합니다. 그러니 외모를 더 꾸미려 하지 말고, 능력을 증명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충성합시다. 여기에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내가 맹세하리라”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이런 맹세 이전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는 해결되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은 자신은 이 사실을 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랄로 넘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우물을 빼앗긴 듯합니다. 블레셋 목자들은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우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불법으로 점유했습니다. 반건조 지역인 팔레스타인에서 물은 생명처럼 귀한 것이고, 필수적이었습니다.⁵⁾ 이렇게 귀한 우물을 빼앗긴 사건은 아마도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신의 누이로 속여서 아비멜렉에게 넘기는 하나의 이유로 작용했습니다.⁶⁾ 우물도 빼앗는 사람들이 아내를 빼앗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나그네, 이방인으로서 힘이 없는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찾아가서 우물을 돌려달라고 말할 수 없

4) Victor P. Hamilton, 『NICOT 창세기II』, 123.

5) Kenneth Mathews, 『창세기 2』, 355.

6) Victor P. Hamilton, 『NICOT 창세기II』, 124.

었을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책망을 듣고 자신을 몰랐다고 말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약자가 강자와 어떻게 협상하는지, 어떻게 자신의 필요와 어려움을 이야기 하는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힘이 약한 사람은 착취당하기 쉽고, 많은 어려움을 일방적으로 감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일일이 강한 사람에게 “이것은 이게 문제고, 저것은 이게 문제다!”라고 따져 물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청년들이 늘 직장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어떻게 하면 상사가 시키는 억울한 일들을 잘 대화로 풀 수 있을까요?”라는 것입니다.윗사람을 향한 존중과 배려, 예의와 친절을 잃지 않으면서, 그의 의사에 반하는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아쉬운 일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수를 하든지, 아랫사람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 생기든지... 우리가 힘이 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리한 일을 만드시면, 강자와의 대화가 훨씬 호의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지고, 쉽게 자신의 요구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협상의 기술이 좋다고 하더라도, 강자가 약자의 사정을 추호도 봐줄 생각이 없으면 협상의 기술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협상의 기술이 좋지 않더라도, 강자가 약자의 사정을 봐줄 생각이 있으면, 협상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삶에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도 중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아브라함은 양과 소를 가져다가 언약을 세웁니다. 흥미롭게도 아브라함은 암양 새끼는 따로 놓았습니다. 아비멜렉은 암양을 따로 놓는 이유를 질문합니다. 말하자면, 암양을 자신에게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암양으로 자신이 이 우물을 판 증거로 삼겠다고 대답합니다. 흔히 고대 근동에서 합의는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증거를 수반했습니다.⁷⁾ 아비멜렉은 양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이 우물의 주인임을 확실하게 보증합니다.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은 서로 맹세하면서 그 공간을 브엘세바라고 지칭합니다. ‘브엘’은 “우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일곱”과 “맹세”를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샤바’로 동일합니다. 일곱 암양으로 산 우물, 맹세의 우물이라는 의미입니다.⁸⁾ 후에 이삭도 같은 상황에서 브엘세바라는 이름을 기억해냅니다.

7) Kenneth Mathews, 『창세기 2』, 357.

8) Victor P. Hamilton, 『NICOT 창세기II』, 127.

언약을 세운 후 아비멜렉과 비골은 블레셋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31절에서 홀로 남은 아브라함은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에셀나무는 10미터에 이르는 위풍 있는 거대한 나무입니다. 이 나무들은 네게브 전역에서 자랍니다. “네게브는 사막의 유랑인들이 그늘을 만들고 가축이 먹을 부드러운 가지를 얻기 위해 그런 나무들을 심는 곳이다.”(Zohary, *Plants of the Bible*, 155.)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나무를 심은 행동은 지속적인 물 공급, 그에 따른 아브라함의 거주를 암시합니다. 앞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긴 것과 비슷한 표현입니다.⁹⁾ 하나님께서는 계속 물을 공급하시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후에 이 상징은 자기 땅에서 평화롭게 거주함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속 3:10).¹⁰⁾

성막과 솔로몬 성전에 있던 식물 표시는 하나님께서 번성을 주심을 상징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나무를 심는 아브라함의 태도는 하나님을 자신이 얻은 번영의 근원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앞으로 헌신하겠다고 결심한 태도를 표현합니다.¹¹⁾

아브라함의 태도에서 우리는 복을 받은 이후가 매우 중요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가축을 키우던 아브라함에게 우물의 상실과 부재는 아브라함의 생존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랄 땅에서 생존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택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불신을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유리하도록 상황을 조성해가십니다.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만 아비멜렉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장치하심으로써 아비멜렉 눈에 아브라함이 지극히 크고 존귀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비멜렉 눈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커보였는지,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평화 협정을 맺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방문을 놓치지 않고, 우물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제 다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에서 번창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재헌신을 다짐합니다. 우리로 치면, 일단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매달리며 충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를 해결 받은 이후에는 감사하면서 헌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신앙은 충성과 헌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9) Gordon J. Wenham, 『창세기 16-50』, 210.

10) Allen P. Ross, *Creation and Blessing*(Michigan: Baker Book House, 1988), 김창동 역, 『창조와 축복』(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05), 577.

11) Kenneth Mathews, 『창세기 2』, 359.

무엇을 해주신 것, 결과를 자랑하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자랑해야 하고, 축복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지금 외적인 복을 많이 받았더라도,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자랑할 것도 없고, 축복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과 친밀하다면, 그 친밀함이야말로 자랑할 만하고, 축복이라 부를 만합니다.

바울은 이를 잘 알았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2-13)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엘 올람)으로 불렀습니다. 오랜 기간 아브라함에게 보여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의 변화를 통해 나타났음을 아브라함이 찬양합니다.¹²⁾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엘로힘(능력의 하나님)으로 불렀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릅니다(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은 단지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언약을 맺고 계신 분으로, 우리에게 헌신하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를 잘 알았고 브엘세바에서 그의 생활을 예배로 채웠습니다.¹³⁾

아브라함의 삶에서 보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 신실하신 것이 아니라, 평생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언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약속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가십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다보면, 아브라함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삶을 예배로 채우도록 만듭니다.

결론적으로, 낯선 땅에서 우물을 빼앗기고, 사라를 빼앗기던 아브라함의 비참한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를 찾고 우물을 찾으면서 아름다운 삶으로, 존귀한 삶으로 변했습니다. 이방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은 약속의 완전한 성취를 기다리는 동안에 고난당하는 의인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여주는 본보기입니다.¹⁴⁾ 우리도 삶에서 억울하고 비참한 경험들을 피할 순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 삶에 좋은 것들을 돌려주실 것입니다.■

12) Gordon J. Wenham, 『창세기 16-50』, 211.

13) Victor P. Hamilton, 『NICOT 창세기II』, 129.

14) John H. Sailhamer, *The Pentateuch as Narrative*(Michigan: Zondervan, 1992), 김동진·정충하 역, 『서술로서의 모세오경』(서울: 크리스찬서적, 2005), 333.